농촌진흥청 보도자료 국민이 만든 회복과 도약, 모두의 1년 대전환의 길

보도 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 6. 19.(금)

(사)농진중앙회 '전주농진회' 창립총회, 본격 활동 시작

- 18일 본청 고객지원센터에서 창립총회 개최

- 농촌진흥청 호남 지역 퇴직자 회원 참석, 초대 회장에 이규성 전 차장

- 업체·현장 전문 상담(컨설팅)…전북 농생명 산업 활성화 일조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6월 18일 본청 고객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사)농진중앙회 '전주농진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후반기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전주농진회 소속 회원이 다수 참석해 정관을 상정·승인하고, 임원 선출 및 올해 후반기 예산안 및 사업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전주농진회 초대 회장에는 이규성 전 차장이 선출됐고, 분야별 부회장 4명과 사무국장 및 감사 등 향후 3년간 전주농진회를 이끌어갈 초대 임원진을 선출했다.

앞으로 전주농진회는 농촌사회 노동력 감소와 고령화, 스마트팜 육성 등 최근 변화하는 농업 현장에서 풍부한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농촌진흥청이 추진하는 농업 연구·지도 사업 조력자로 제 역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전북 농생명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기술 자문 등 지역발전에 일조하는 든든한 후원자로서 위상을 높여갈 예정이다.

1982년 출범한 (사)농진중앙회는 경기도 수원을 중심으로 전국 11개 도 농진회와 부설연구소(한국농업개발원)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농진중앙회장은 제27대 농촌진흥청장을 역임한 라승용 전 청장이 맡고 있다. 전국 회원 수는 총 1,359명에 달한다.

농진중앙회 라승용 회장은 축사에서 “전주농진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감으로써 지역 농산업체 현장에서 첨단 연구 역량을 발휘하고 추후 농진중앙회 전주 이전을 고려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라며 “전북 농생명산업 활성화에 일조하는 농업 분야 최고 전문가 집단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앙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전주농진회 이규성 초대 회장은 “농업 분야 최고 전문가 집단인 전주농진회가 농촌진흥청의 농업 기술 혁신을 뒷받침하고 지역 상생과 발전을 도모하는 ‘작지만 쓸모 있는 조직’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회원들과 힘을 모아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붙임. 사단법인 농진중앙회 「전주농진회」 창립총회 개최

담당 부서	농촌지원국 농촌지원정책과	책임자	과 장 노형일 (063-238-0910)
		담당자	사무관 이일용 (063-238-0914)

농촌진흥청에서 연구·개발한
농업의 모든 것 농사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사단법인 농진중앙회 「전주농진회」 창립총회 개최**

□ 목적

○ 연구개발과 기술 보급 간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공동 목표 및 운영 방향을 공유하여 협의체 추진의 실행 기반을 마련

□ 일시 및 장소

○ 2026. 6. 18.(목), 16:00 ~ 17:30, 본청 고객지원센터 회의실

□ 주요내용

○ 전주농진회 창립총회

(1호 안건) 전주농진회 정관(회칙 등) 상정 및 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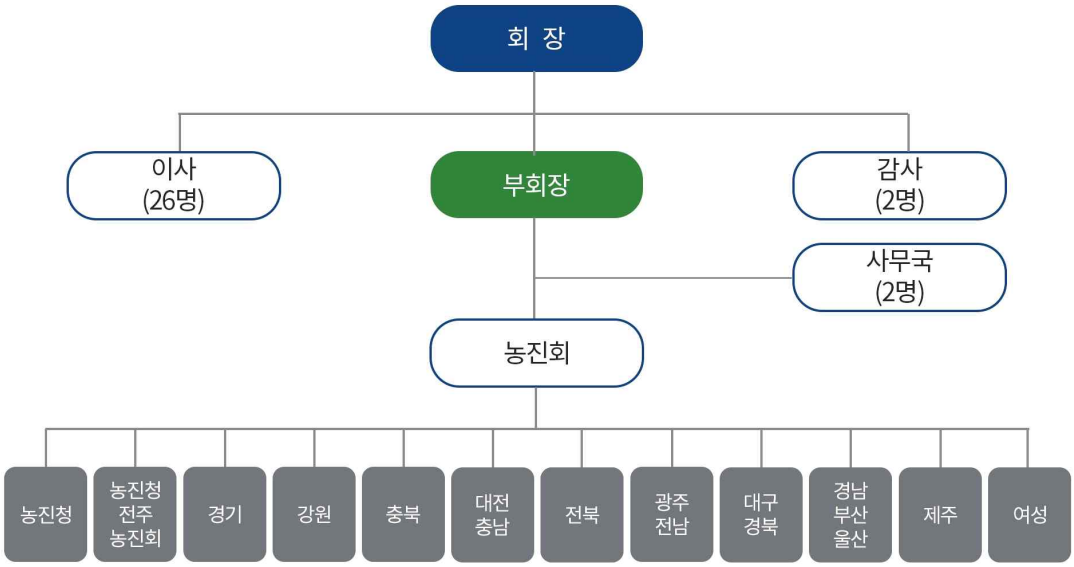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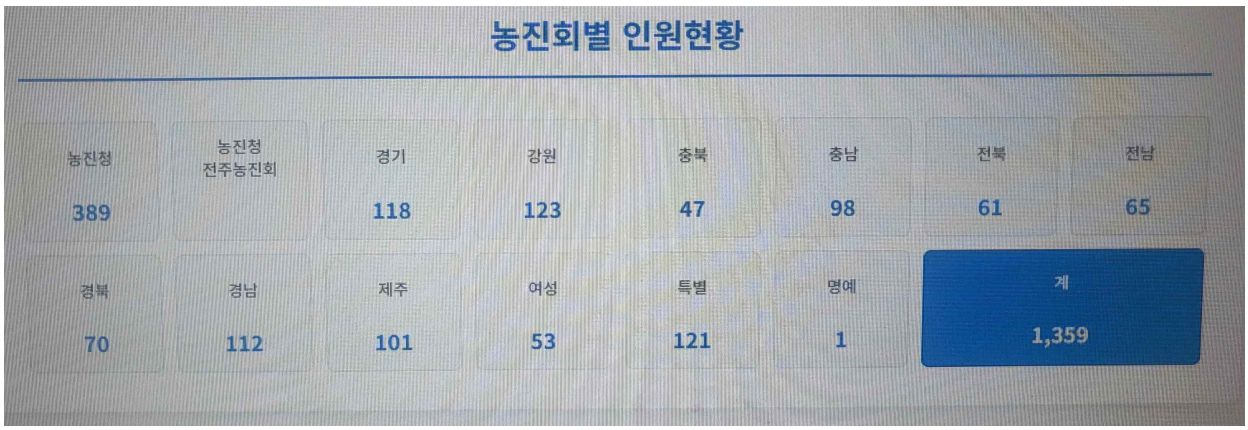
(2호 안건) 전주농진회 회장 등 임원 선출

(3호 안건) 2026 예산안 및 사업계획

○ 전주농진회 회장, 임원진 인사 * 축사 라승용 중앙회장

○ 전주농진회 발전 방안 등 토론

□ 세부 일정

시 간	분	주 요 내 용	비 고
~ 15:00		■ 등 록	
16:00 ~ 16:05	5	■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자
16:05 ~ 16:10	5	■ 개회사	추진위원장
16:10 ~ 16:15	5	■ 경과보고	부위원장
16:15 ~ 16:45	30	■ 전주농진회 회칙(안), 임원 선출, 예산 및 사업계획 상정 및 심의	의장
16:45 ~ 16:50	5	■ 축사	중앙회장
15:50 ~ 17:25	35	■ 발전방안 토의	회장
15:25 ~ 17:30	5	■ 폐 회	사회자

참고 사단법인_농진중앙회 조직 및 회원현황